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징계를 잊지 말라

■ 신명기 11장 1~7절

■ 28장(통28), 292(통415)

■ 2018년 6월 24일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맡겨진 책무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징계를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징계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1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1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단어는 남겨 간에 뜨거운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겁고 열렬하게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무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직분과 책임을 가리킵니다. 법도는 도덕적인 도리이고, 규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법도나 규례, 명령은 하나님의 전 율법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면 죄를 사함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2~7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찢은 팔과.” 라고 말씀했습니다(2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현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이지만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라고 말씀했습니다(3~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바로의 마음이 녹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고, 애굽 군사는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았음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 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이 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라고 말씀했습니다(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략 4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나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불뿔이나 전갈, 독충들이 많아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나 살았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독충들을 막아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 먹을 양식을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게 하여 마시게 하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신8:3).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6절).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은 자신들을 따르는 지도자 250명을 이끌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습니다. 그 때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민16:4~5). 그리고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고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민16:24). 그리고 땅이 갈라져 다단, 아비람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켜버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고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바로 섬기지 못하고 정욕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사명이 있는데도 감당하지 않고 세상을 즐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면 징계 받은 것이 약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7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을 보았으니 이제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징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맡기신 책무를 다하고, 법도, 규례,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큰 구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기 바랍니다.

중요 공과 내용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1절).
2.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2~5절).
3.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6절).